주요 호주 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정인영 연구원

요약

2015년 이후 호주의 주요 금융그룹은 보험사업을 매각하고 있음. 보험사업 매각 원인으로는 ① 보험사업 부문의 수익성 저하, ② 금융그룹의 자본 확충 필요성, 그리고 ③ 불완전판매에 따른 평판위험 등임. 금융그룹의 수익성 저하 및 자본 확충 필요성 확대와 더불어 주요 금융그룹 보험자회사들의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적발로 인한 평판위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보험자회사를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호주의 사례는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가 은행그룹의 평판위험을 확대시켜 자회사 매각으로 이어지는 사례이며 보험금 지급과 불완전판매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2015년 이후 Westpac을 제외한 호주의 주요 금융그룹은 보험사업을 매각하고 있음[1)]

- NAB 금융그룹은 2016년 10월 보험자회사인 MLC Limited의 지분 80%(24억 호주달러)를 일본생명(日本生命)에 매각함[2)]
  - 한편 NAB는 일본생명과 향후 20년간 방카슈랑스 채널 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함[3)]
- CBA 그룹은 생명보험 자회사 CommInsure를 AIA에 38억 호주달러에 매각하기로 2017년 9월 합의함[4)]
  - AIA의 호주 보험시장 점유율은 개인보험 17%, 단체보험 35%로 각 부문 3위와 1위를 기록함
- ANZ 그룹은 올해 10월 퇴직연금 사업부문을 IOOF Holdings에 9억 7,500만 호주달러에 매각한

1) 2016년 말 자산규모 기준으로 호주의 4대 은행은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CBA),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ANZ), Westpac Banking Corporation, National Australia Bank(NAB) 등이며 본고에서 '금융그룹'은 은행 중심의 금융그룹임; KPMG(2016), "Major Australian Banks - Full Year 2016 Results Analysis"

2) 日本生命(2016. 10. 3), "Nippon Life completes acquisition of 80% of the shares of the MLC life insurance business"

3) 일본생명은 자국 생명보험산업이 인구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옴. 호주 보험시장 규모는 일본의 15%에 불과하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안정적 성장을 예상하고 일본생명은 수년 동안 적절한 인수대상을 물색해옴; Nikkei Asian Review(2015. 10. 14), "Nippon Life Insurance to buy National Australia Bank's life insurance unit"

4) Bloomberg(2017. 9. 20), "Commonwealth Bank Sells Life Unit to AIA for A$3.8 Billion"

데 이어,[5] 자회사인 OnePath 생명보험을 스위스의 Zurich Group에 28억 5천만 호주달러에 매각하기로 12월 11일에 발표함

- 한편 ANZ 그룹은 모기지보험(lenders mortgage insurance), 손해보험,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와 뉴질랜드에서의 생명보험사업은 지속하기로 함[6]
- Zurich는 OnePath 인수로 개인보험 시장점유율이 7%에서 19%로, 단체보험 시장점유율은 6%로 상승함(〈표 1〉과 〈그림 1〉 참조)

〈표 1〉 호주 금융그룹의 생명보험사업부문 매각 사례(거래규모 기준)

발표일	매각자	매각회사	인수자	거래규모 (호주달러)	인수자 시장점유율	
					개인보험	단체보험
2017. 9. 20	CBA	CommInsure	AIA Group	38억 달러	17%	35%
2017. 12. 11	ANZ	OnePath	Zurich Insurance	28억 달러	19%	6%
2015. 10. 27	NAB	MLC	Nippon Life Insurance	24억 달러	14%[1)]	9%[1)]

주: 1) NAB의 보험시장 점유율임
자료: Reuters(2017. 12. 12), "Australia's Great Life Insurance Sell-Off"; Deloitte(2016), "M&A in Australia's Insurnace Sector – Positioned for Growth"

■ 호주 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으로는 ① 보험자회사의 수익성 저하, ② 금융그룹의 자본 확충 필요성, 그리고 ③ 불완전판매와 평판위험 등임

■ 첫째, 보험자회사의 수익성 정체로 보험부문의 은행그룹에 대한 이익기여도가 감소추세임(〈그림 1〉 보험사업부문의 이익기여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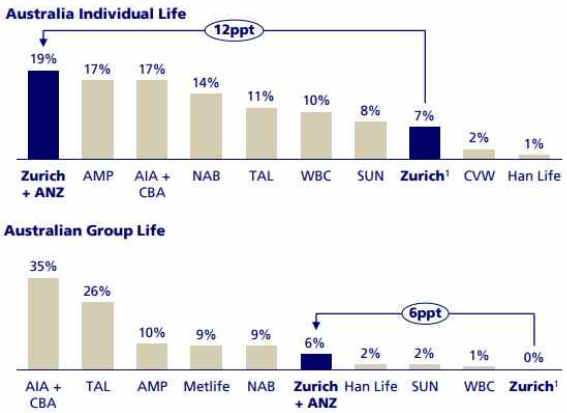
- 보험사업을 매각한 호주 금융그룹의 보험사업부문의 이익기여도는 하락하고 있거나, 10% 미만으로 높지 않음[7]
- CBA와 NAB의 보험사업부문 이익기여도(그룹이익 대비 보험부문이익)는 2012년 6.05%와 5.29%에서 2016년 4.09%와 0.39%로 하락함

5) Reuter(2017. 10. 17), "Australia's ANZ sells pension business to IOOF for $766 million"
6) Financial Standard(2017. 12. 12), "ANZ sells life insurance business for $2.85 billion"
7) 과거 호주의 4대 금융그룹은 경쟁 심화 및 규모의 불경제 등으로 인해 순이자 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수수료수익과 보험수익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유지해왔음; 서병호(2011), 「한국·호주의 은행산업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그림 1〉 호주 보험 산업의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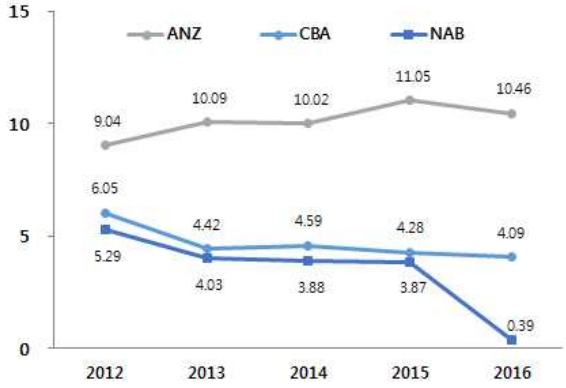
생명보험산업의 시장점유율(2017년 6월 기준)

(단위: 건)



보험사업부문의 이익기여도

(단위: %)



주: ANZ와 NAB의 경우 전체 순이익 대비 보험부문과 투자부문의 순이익을 합산 비율임

자료: ZURICH(2017. 12. 11), "Zurich to acquire the Life insurance business of ANZ"; 각사 Annual Report

둘째, 호주 금융건전성감독청(APRA)은 올해 7월 호주 4대 은행들의 자본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8] 은행의 자본 확충 필요성이 커짐

- APRA는 2020년부터, ANZ, CBA, NAB, Westpac 등 호주 4대 은행의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비율을 10.5%로 강화하기로 발표함[9]
  - 이는 2016년 말 4대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의 평균값인 9.5%보다 1.0%p 높은 수준임
- 호주의 주요 금융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06년 20.7%에서 2010년 16.2%, 2016년 13.8%로 하락추세를 지속함(〈표 2〉 참조)
- 이익창출능력의 약화로 인한 자본 확충의 어려움도 보험자회사 매각의 원인으로 보임

〈표 2〉 호주 금융그룹의 수익성(ROE)

(단위: %)

구분	FY06	FY07	FY08	FY09	FY10	FY11	FY12	FY13	FY14	FY15	FY16
ANZ	20.7	19.6	13.5	12.5	16.4	15.7	14.7	15.1	15.3	14.0	10.3
CBA	21.3	22.1	19.9	16.3	18.9	20.0	18.1	18.6	18.8	18.2	16.5
NAB	17.7	17.1	11.9	10.9	13.5	15.2	13.5	14.3	9.0	14.8	14.3
WBC	23.0	24.0	21.9	13.4	15.8	15.6	15.9	15.8	16.4	15.8	14.0
평균	20.7	20.7	16.8	13.3	16.2	16.6	15.6	16.0	14.9	15.7	13.8

자료: KPMG(2016. 11), "Major Australian Banks: Full Year 2016 Results Analysis"

8) APRA(2017), "Strengthening banking system resilience – establishing unquestionably strong capital ratios"

9) 중·소형은행의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비율은 기존 7.0%에서 7.5%로 소폭 상향

셋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2016년 말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실태를 조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요 금융그룹의 평판이 훼손됨[10]

- ASIC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과정 조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벌금부과와 계약자보호 강화를 권장하였으며, 호주건전성감독위원회(APRA)도 보험회사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임
  - ASIC의 조사결과 CBA 그룹의 자회사인 CommInsure社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과거의 의학적 정의를 사용한 것으로 적발되었음
  - 특히, CBA의 자금세탁방지규정(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위반건수가 54,000건에 이르는 등 회사의 평판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또한 1억 달러 규모의 소비자신용보험(Consumer Credit Insurance) 불완전판매가 적발됨
- Westpac 그룹은 ASIC로부터 권고를 받지 않았으나 2017년 10월 자사 은행지점에서 생명보험상품을 4.5% 비싸게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보험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제기당함
- NAB는 영국에서 불완전판매로 4억 달러 벌금을 부과받음[11]
- ANZ는 2016년 8월 불완전판매로 인해 집단소송을 제기당하였고 ASIC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기도 함[12]

보험금 지급과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가 금융그룹의 평판위험을 확대시켜 보험자회사 매각으로 이어지는 사례임

- 은행그룹의 수익 1단위 창출에 소요되는 비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자회사의 평판위험 확대는 은행그룹에게 비금전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특히,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 충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업에 대한 평판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보험사업 운영을 통한 이익실현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13]
  - 금융그룹의 경우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판매보다는 고객에게 단순히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보험자회사의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 관련 평판위험이 은행자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 그룹의 다양한 리스크와 결합될 경우 금융그룹의 평판위험은 크게 훼손될 수 있음 KiRi

10) ASIC(2016. 10), "REPORT 498: Life insurance claims: An industry review"
11) Herald Sun(2015. 4. 15), "National Australia Bank's problem UK business fined $40 million after mis-selling insurance products"
12) Financial Standard(2016. 8. 4), "ANZ faces mis-selling allegations in courts"
13) Financial Review(2017. 9. 28), "Why the banks are quitting life insurance?"